

# 복천사 산사태, 제2의 우면산 될까 두려워

### 통행로 유실, 명부전 등 파손 관계당국 복구 지원 시급

부산 전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영도구 봉래산 복천사(주지 해문)가 7월 27일 산사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부산시청과 영도구청 등 관계당국은 영도구 해안도로 유실을 이유로 사고 6일 만인 8월 2일 오전에서야 복구 작업을 지원해 피해복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사태가 처음 발생한 지점은 봉래산 조봉(395m) 정상에서 10m가량 떨어진 등산로 부근이다. 이곳에 쌓여있던 토사는 산중턱 백련사와 목장원 어귀에서 큰 바위와 조봉에서 30m 거리의 복천사 산신각을 덮쳤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산사태에 놀란 주지 해문 스님과 신도들이 한밤중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현재 경내 마당에서 산신각으로 이어지는 통행로가 유실됐다. 그리고 명부전은 뒷벽이 바위에 무너지고 마루와 탁자,

영단, 심대왕상은 영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됐다. 칠성각은 옆면과 뒷벽이 파손됐고, 바위와 토사로 뒤덮여 있다.

산사태로 복천사 경내에 쌓인 바위와 토사는 20톤 트럭 20여대 분량으로, 피해액은 2억 여 원으로 추정된다. 사찰측은 완전 복구되기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0년 넘게 복천사 산신각에서 매일 기도를 해온 지순자(75·영도구)씨는 산사태로 끊어진 길 아래에서 합장 반배로 빠른 복구를 기도했다. 지씨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 우리 집이 무너진 것보다 더 비통하고, 부처님의 집을 잘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복천사 주지 해문 스님은 사고 발생 6일이 되어서야 관계부처가 복구 인력을 지원한 원인을 한진중공업 사태에서 찾았다.

스님은 "먼저 영도구를 잘 빠르게 재해지역으로 선포했다면 영도 해안도로 복구 후 빠르게 지원 인력이 복



7월 27일 부산 영도구 봉래산 산사태로 바위와 토사로 뒤덮인 복천사

천사에 투입됐을 것이다. 한진중공업의 희망버스 등에 군경할 병력이 운용돼 복구가 그만큼 늦어졌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영도구청 관계자는 "현장실사를 해보니 영도 해안도로 못지않게 피해상황이 심각하다"며 "신속하게

복구해 영도구민들이 이전처럼 편안하게 찾아오는 기도로량으로 지역민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방기상청은 7월 28일 미국 팜 서쪽 10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9호 태풍 '미이 파

(MUIFA)'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7-8일 양일간 부산 전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다. 제2의 우면산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빠른 피해복구에 관계당국은 물론 불교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기자

## “정말 제대로 쉬어보자”... 금산사서

### 금산사 여름템플스테이 '나를 내비뒀다' 콘서트

'나는 쉬고 싶다'를 주제로 열리는 김재 금산사(주지 원행)의 여름 템플스테이 '나를 내비뒀다 콘서트'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8월21일 총 4회에 걸쳐 각 회당 100명씩을 초청해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에는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는 ESC 숲길 포행 참선명상 선호하는 책 그늘서 보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금산사 '나는 쉬고 싶다' 템플스테이는 심마를 여행가 강재윤씨와 함께하는 콘서트로 진행됐으며 8월 1~3일까지 섬진강 시인 김용택이 게스트로 초대돼 일감 스님과 토크쇼를 가졌다.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은 "방학차, 입차문래막존지해(入此門來 莫存知解)라는 말이 있다. 이런 말들은 오늘의 콘서트 주제인 내비뒀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며 "잘 쉬는 사람만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금산



나를 내비뒀다 콘서트 중 섬진강 시인 김용택과 일감 스님의 토크쇼 장면

사 템플스테이 참가를 계기로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는데 충전의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감 스님은 "이번 프로그램은 스스로를 자유로운 영혼으로 그냥 두자는 뜻이다. 육체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쉬고 싶어한다. 절에서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내비뒀다 콘서트의 의미를 설명했다.

두 번째 게스트로 초대된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 시인은 교

육자 출신답게 "경제가치가 삶의 가치를 먹어치우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 가정, 학교, 사회가 행복의 맛을 보여주어야 아이들이 행복이 무엇인지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내비뒀다 콘서트에는 이창선 퓨전국악밴드, 인디밴드 유&김, 아쟁 김영길, 이태연씨 등 지역에 활동하는 음악인이 함께 참여했으며 앞으로 선재 스님, 달팽이 사진골방 임종진씨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체조 향한 어르신들의 일편단심

### 고창군노인복지회관 생활체조동아리 수상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도완) 9988생활체조공연동아리가 전남 강진군에서 열린 제7회 전국실버댄스체조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8월 3일 수상했다.

전국 12개 지역에서 21개팀이 참가해 열린 경연을 펼친 이번 대회에서 9988생활체조공연동아리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과 역동적인 공연으로 관객 및 심사위원들을 매료시켰다.

복지회관측 관계자는 "노인들의 역할과 정체성이 작아지는 요즘, 9988생활체조공연동아리가 지역에서 활기차고 역동적인 노인의상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전문 공연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0년 평균 70세 이상 어르신 24명이 모여 2010년 결성된 9988생활체조공연동아리는 강미숙 강사(고창군통합체육회 생활체육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각종 대회 및 공연 활동을 전개해 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9988생활체조 동아리 회원들이 장려상을 수상해 기뻐하고 있다.

## 영선사 등용청소년 공부방 '인기'

전북 남원시 인월면 영선사(주지 월공)가 운영하고 있는 '등용(登龍) 여림방학 학업 특별 용맹정진' 프로그램에 전국에서 모여든 30여명의 중·고·대학생들이 무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부삼매경에 빠져 있다.



등용 청소년 무료 공부방 참가자.

과거 절에서 고시공부를 하던 모습에서 착안해 마련한 '등용청소년 무료 공부방'은 월공 스님이 2009년부터 20명 정도의 영선사 신도 자녀를 위주로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해 용맹정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등용청소년 공부방'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외지인 참가 신청 줄이어 성적 향상으로 호응 높아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아지자 올해부터는 외지 학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그러자 학생들의 신청이 대거 몰리면서 방사가 부족해 인원을 제한해야 할 지경이다.

월공 스님은 "당초 약 한 달 정도의 사찰 생활을 통해 불교계 인재나 불교에 호감을 가진 인재 양성을 위해 무료 공부방을 운영하게 됐다"며 "수련대회 성격을 가미한 퓨전형 실행방식으로 운영했으나 취지에 공감한 부모님과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외지 학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선사에서 숙식하는 학생들은 아침 6시반 기상해 세면과 아침 공양을 마치고 삼귀의, 반야심

경과 간단한 법문을 들은 후 밤 10시 30분까지 공부를 한다. 무료공부방은 영선사에서 10분 거리인 인월면에 있어 식사와 잠자리는 모두 영선사에서 해결하고 있다.

월공 스님은 "요즘 청소년들이 모이기 힘든데 공부라는 매개체로 모인 후 한 달간 절에서 생활하면서 스님의 생활 지도로 자연스럽게 불교적 정서에 녹아들었다"며 "공부방을 거쳐간 학생들은 대부분 성적 향상으로 이어져 절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스님과 학생들의 소통도 원활해져 서로 문자도 주고받을 정도"라고 밝혔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이 매우 예민하고, 핵가족 제도에서 성장해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점과 지역 학생들과 외지 학생들간의 다소의 갈등은 차후 보완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공부방 프로그램에 세 번째 참여한다는 신윤수(남원중 3)군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와 형 누나들과 함께 공부하는 단체 생활과 많은 책이 있어서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석정사 교도소서 영산재 봉행

칠곡 석정사(감주 노사나)는 7월 27일 경북북부 제3교도소(소장 배종섭) 강당에서 영산재를 봉행했다.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봉행된 영산재.

이날 영산재는 부산 태고종 서부종무원 원장 지만 스님, 범음범패 강주 지효 스님과 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교육원장 지안 스님 등 스님 16명을 비롯해 1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행사는 태고종 범음범패단의 의식과 함께 한국고전무용 살풀이춤, 지전춤, 창작무 '아우라의 슬픔' 등이 이어졌다.

석정사 노사나 감주는 경북북부 교도소 불교교육 분과 교정위원으로 그동안 교도소 내에서 위문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 삶은 고가 아니다

초판 22쇄의 스테디 셀러!!

10,000원 A5/287쪽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롭게 한 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제)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http://www.hyunbulshop.com)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수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전수경(한글/영어)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게송·선화의 집대성
- ▶ 대행스님의 뜻으로 쓴 금강경(독송문)

\* 구입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